

TV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부~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 릴레이 20 아침 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화해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비틀말 고요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11 00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월화 드라마 <동안 미녀>(재)	12 00 MBC 뉴스 25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12 뉴스 30 특집 KBC 열린토론회(재) <여수세계박람회 D-1 남은 과제는?>
00 KBS 걸작선 <신데렐라 연니>(재)		1 15 문화이슈	30 트라피드 세계여행
00 KBS 뉴스 10 KBS 월요특강	10 퀴즈쇼 사총사(재)	2 15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양이 보인다>
10 콘서트 필 및 재방송(재) 55 KBS 오늘의 경제	00 KBS 뉴스타임 05 외곽외곽 꼬꼬말(재) 35 애플 캔디걸(재)	3 05 MBC 네트워크 특선 <세 번의 눈물은 없다>	10 HD테마다큐 <세계문화 대탐험>(재)
05 INPUT 2011 서울특선다큐 <주최장 사람들>	00 TV 유치원 30 주유림 동물탐정	4 00 MBC 뉴스 10 뽀뽀아이즈 40 보글보글곡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프	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00 SBS 뉴스 페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도전! 슈퍼대디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00 세네포드(재)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들의 거꾸기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시더기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 뉴스타임 <광주전남> 50 위기탈출 남북원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재미있는 퀴즈 클럽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동안미녀>	9 55 MBC 특별기획드라마 <썩패>	55 월화 미니시리즈 <내게 거짓말을 해봐>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리인 40 INPUT 2011 서울특선다큐 <체르노빌 자연의 역사인가>	05 왕중왕전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1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밤이면 밤마다
35 KBS 뉴스 45 비바 K리그	25 INPUT 2011 서울특선다큐 <시와 점성>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나는 가수다' 청중 평가단 선발도 치열

신청 건수 10만건 육박...경쟁률 200 대 1

MBC '우리들의 일밤' 중 화제의 코너 '나는 가수다'가 방송을 재개하면서 청중 평가단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500명으로 이뤄진 청중 평가단은 출연 가수들과 함께 '나는 가수다'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 청중 평가단 신청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5천건의 글이 올라왔다. 6일까지 신청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면서 경쟁률은 200대 1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청중 평가단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균등하게 구성된다. 연령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별로 100명씩 배분된다. 그룹별 성비도 균형을 맞춘다.

연령과 성별 외에 다른 제한 조건은 없지만 선발시 신청순서와 사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선발은 전

화 면접을 거쳐 이뤄진다.

당초 제작진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천명의 평가단 풀을 구성했다. 이들을 교대로 평가에 참여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풀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풀을 해체하고 500명 중 30%는 남겨두고 70%를 교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1차 경연 심사에 참여했던 평가단 500명 중 70%는 2차 경연 때 바뀐다.

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청중 평가단에 들어가지 못한 시청자들도 라이브의 감동을 느낄 기회가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TV팟 메뉴를 통해 미편집 경연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6일까지 임재범의 '너를 위해'는 재생건수가 350만건을 넘어섰고 김연우가 131만건, 박정현이 108만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청중 평가단은 단순한 관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가수들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도 한몫한다.

시청자들은 청중 평가단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다.

청중 평가단이 감동에 겨워 탄식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배가한다.

녹화 방송인 까닭에 청중 평가단은 종종 스포일러로 지목되기도 한다. 제작진은 청중 평가단이 스포일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 PD는 "스포일러 유출에 대해 현장에서 구두로 부탁할 뿐 서면 각서까지 받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다. 조금만 지나면 그런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테이 '오페라스타' 우승



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가수들의 오페라 도전기를 담은 tvN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페라스타 2011'이 테이

테이는 7일 밤 11시 서울 상명아트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페라스타' 파이널 무대에서 52%의 시청자 문자투표 점유율을 기록, JK 김동욱을 4%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연은 가수의 솔로곡 대결과 가수·멘토가 짝을 이루는 듀엣

곡 대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생방송 1~5라운드 미션곡 중 가장 자신있는 곡을 고르도록 한 솔로곡 무대에서 테이는 이탈리아 가곡 '물망초'를, JK 김동욱은 '카루소'를 각각 열창했다.

심사위원단은 테이에게 "지난번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를 잊지 말아요(물망초의 꽃말)'라는 느낌까지 잘 전달했다" "가장 성악적으로 부르려고 노력하는 가수"라는 호평을 내렸고 JK 김동욱에게도 "목소리만으로도 심금을 울린다" "김동욱 버전의 카루소가 완성됐다"며 찬사를 보냈다.

테이·JK 김동욱은 솔로곡 대결 후 발표된 문자투표 중간 집계에서 각각 51%, 49%의 득표율을 기록,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페라스타 2011'의 우승자인 테이에게는 영국 모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7일 甲子)



36년생 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 받아보라. 48년생 개인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60년생 계획한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72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84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5,45



37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49년생 일에 불평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신 잘하라. 61년생 일이 순조롭게 결정 난다. 73년생 방풍림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 있다. 85년생 보기 좋은 떡 먹기 좋다 결과 속이 꼭 찬 과일이다. 행운의 숫자 : 20,45



38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50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리라. 62년생 세상이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74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행운의 숫자 : 21,16



39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51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63년생 이웃을 살펴보고 불평을 도와주라. 75년생 정신적 불평이 발상할 수 있고 부부갈등이 연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31



40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52년생 지속적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64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76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 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25



41년생 허황된 문서관 조심히만 대손은 없다. 53년생 가까운 인 사들로부터 기만을 당하거나 금전피해가 있다. 65년생 가도안정에 힘을 쓰라. 77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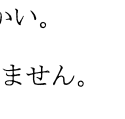
42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54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 준비하고 있으라. 66년생 말 다름이 송사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78년생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행운의 숫자 : 0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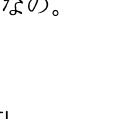
43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55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67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79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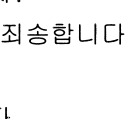
44년생 애인이 불안하니 용기를 북돋우라. 56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장이 솟아난다. 68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80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까지 소란사로 번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9,26



45년생 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57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69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다. 81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4,16



46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의 지혜를 갖으라. 58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70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안하리라. 82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행운의 숫자 : 12,38



47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5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71년생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평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라. 83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3,2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EBS	
06:00 신나는 인생 5678	09:50 깨미
06:30 직업의 세계 <일인자>	10:00 로보의 별나라 여행
07:00 미스 스피디더와 개구쟁이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우정육의 맛깔난 한상차림>
07:25 내 친구 티미	11:00 60분 부모
07:35 꼬미리관자 토마스와 친구들	12:00 EBS 정오 뉴스
07:45 뽀뽀뽀 뽀로로	12:10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08:00 뽀뽀뽀 뽀로로	13:00 세계대미기행
08:20 로보가 놀리	13:40 한국기행 <영랑>
08:35 우당탕탕 아이쿠	14:00 디큐리엄
08:45 따까리 루	<천국의 국경을 넘다2>
08:55 꼬미리관자 토마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09:10 방구대장 뽀뽀	15:20 뽀뽀뽀 뽀로로(재)
09:25 도와줘요 코알라 형제	15:35 깨미(재)
09:35 팀가팅가 이야기	
15:50 내친구 티미(재)	20:00 우리기 천사들
16:00 뽀뽀뽀 뽀로로(재)	20:30 EBS 뉴스
16:20 특수요원 오소	20:45 지식채널 @
16:45 방구대장 뽀뽀(재)	20:50 세계대미기행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우랄을 가다>
17:00 꼬미리관자 토마(재)	21:30 한국기행 <재현>
1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21:50 디큐리엄 <꿈>
17:25 따까리 루(재)	22:40 직업의 세계 <일인자>
17:35 도와줘요 코알라 형제(재)	23:10 디큐 10+
17:45 로보가 놀리(재)	00:00 지식채널 @ <재>
18:00 생방송 특 특 보너스하니	00:05 글로벌 특강 테드
18:50 외곽외곽 친구들	00:35 석가탄신일 특집 디큐멘터리 <깨달음을 얻는 자, 부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베르시유의 잠미	
08:00 사회복지사 급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내용 남남
08:30 초등수학-매트레이너	3학년1학기 <국어>
09:00 중학3학년 <국어>	15:50 " 4학년1학기 <국어>
09:40 " <수학 3-1>	16:20 " 5학년1학기 <국어>
10:20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	16:50 " 6학년1학기 <국어>
11:00 EBS TV 중1 영어	17:20 외국인어를 위한 실용 한국어 <문화1>
11:40 수학의 원리 미디어터카	17:50 중학1학년 <영어>
11:50 중학2학년 <영어>	18:30 " <영어>
12:30 " <수학 2-1>	19:10 중1 퍼펙트 체크업 <수학1-1>
13:10 중2 퍼펙트 체크업 <과학>	19:50 중학2학년 <영어>(재)
13:50 중학필수 영단어	20:30 " <수학2-1>(재)
14:10 뽀뽀뽀 뽀로로 영속어	21:10 중학3학년 <국어>(재)
14:30 EBS 초등영어	21:50 " <수학3-1>(재)
14:50 EBS 클럽랩	22:30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재)
15:10 수학의 원리 미디어터카(재)	23:10 중1 " <수학1-1>(재)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What's the status of the project ?</p> <p>기획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p> <p>A : John, what is the status of the project I gave you to work on?</p> <p>B : I am done with everything except for the graphics.</p> <p>A : Scratch the graphics. We need it this afternoon.</p> <p>B : What happened?</p> <p>A : The investors are in town a day early.</p> <p>A : 존, 내가 처리하라고 준 기획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p> <p>B : 그래픽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쳤는데요.</p> <p>A : 그래픽을 그리세요. 오늘 오후에 필요합니다.</p> <p>B : 무슨 일 있습니까?</p> <p>A : 투자자들이 하루 일찍 도착했거든요.</p> <p>* work on ~ = ~ 처리하다</p> <p>* do with ~ = ~을 끝내다</p> <p>* investor : 투자자</p>	<p>親のすねをかじる。</p> <p>부모에게 얹혀살다</p> <p>A : 安野君、お久しぶりだね。お元気かい。</p> <p>B : はい、先生ご無沙汰してどうもすみません。</p> <p>A : 卒業してから3ねんぶりだね。どうなの。</p> <p>B : 今も親の腰を齧ってます。</p> <p>A : 야스노군 오래만이구나. 건강하지.</p> <p>B : 예, 덕분에 선생님 격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p> <p>A : 졸업하고 3년만이구나. 어때?</p> <p>B : 지금도 부모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p> <p>[단어정리]</p> <p>お久しぶりだ 오랜만이다</p> <p>ご無沙汰する 격조하다</p>	<p>不醉不休 búzui bùxiū</p> <p>오늘 달리는 거야</p> <p>술자리 관련 용어 중에 언제 부턴가 '오늘 한번 달리는 거야' 라는 말이 있더군요. 광고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내 주변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시다'라는 종 교양스럽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제목은 생각 안하는데 대학날 때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술 마시고 싶을 땐 한 번쯤은 목숨을 걸고 마셔 보아라'. 달리고, 죽고, 목숨 걸면서 마시는 정도의 표현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할까?</p> <p>중국어에는 목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알른 '시원하게 마시는 거야'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不醉不休 búzui bùxiū (오늘 안취하면 안 그친다), 혹은 一醉方休 yí zui fāng xiū(취하도록 마시다)라고 말합니다. 술 몇 잔 돈 다음 성 조 정확히 하여 큰소리로 날려주면 효과 좀 봅니다. 물론 끝까지 간다고 누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조심해야죠.</p>	<p>玉石混淆(옥석혼효)</p> <p>구슬 옥, 돌 석, 섞을 혼, 뒤섞일 효</p> <p>옥석혼효(玉石混淆)는 옥과 돌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뜻으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p> <p>동진(東晉)시대 도가 계열의 철학자인 갈홍(葛洪)이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이 도의 큰 바다라고 한다면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은 이것을 보충하는 냇물의 흐름이다. 방법은 달라도 도 닦는 데는 다툼이 없다. 옛사람들은 재능을 얻기 어려움을 탄식하여 곤륜산(崑崙山)의 옥이 아니라 해서 야광주(夜光珠)를 버리거나 성인의 글이 아니라 해서 수양이 되는 말은 버리지 않았다. 또 천박한 시부를 감상하는가 하면 뜻 깊은 제자백가의 책을 하찮게 여기며 금언(金言)을 하찮게 생각한 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바뀌고 옥과 돌이 뒤섞이며 아악(雅樂)도 속악(俗樂)과 같은 것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도 누더기로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게 짝이 없다."라고 한데서 유래한다.</p> <p>[출전]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 <외편(外篇) 상박(尙博)></p> <p>* 급수 : 한자능력검정 4급4, 6급, 4급, 4급, 4급</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p> <p>www.donga.tv ☎ 222-6253</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p> <p>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p> <p>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대능출판></p> <p>www.daeneungedu.com</p>